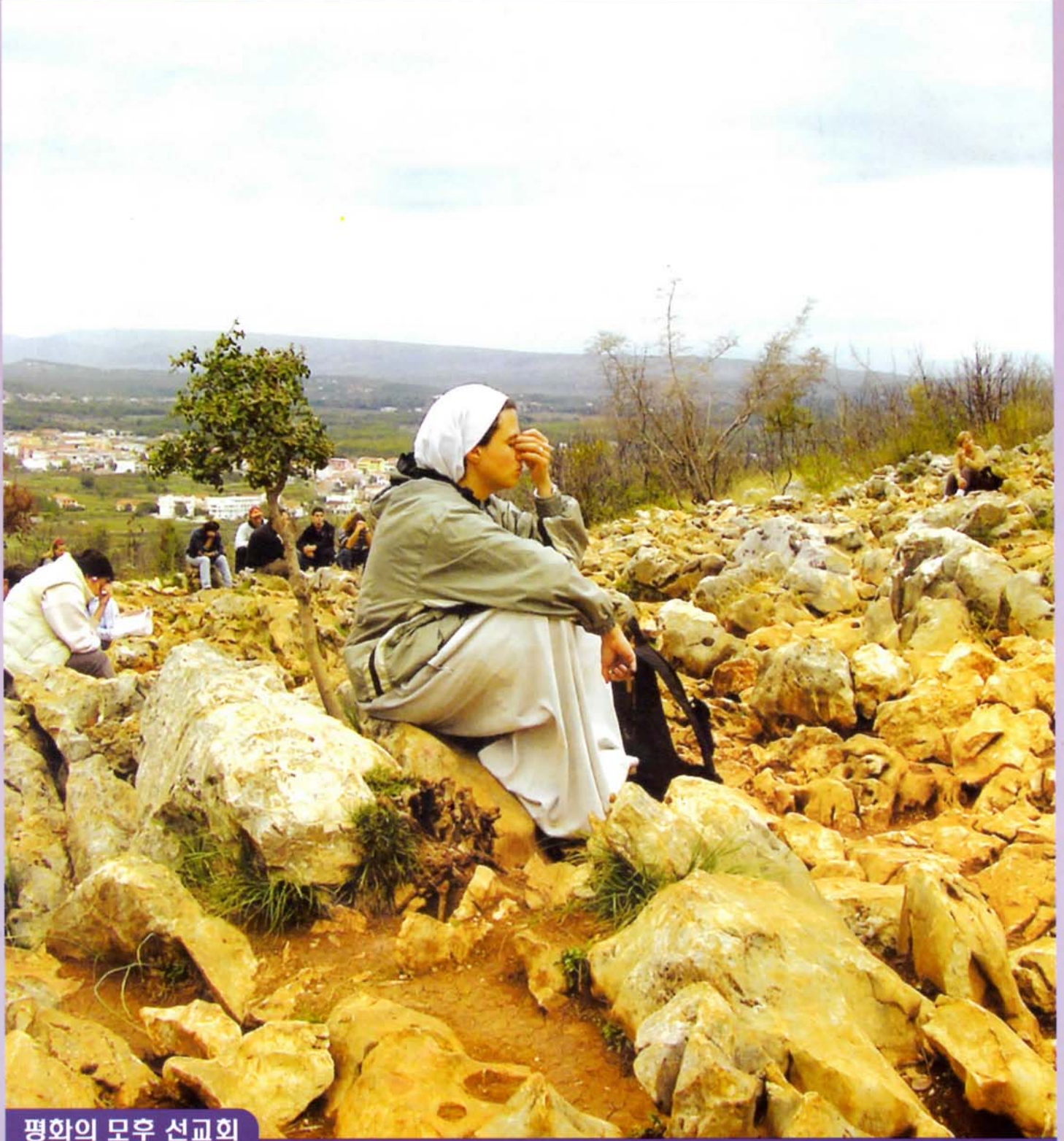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Medjugorje

AUGUST, 2005 제28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열정적인 짧은 기도들로 너희의 하루를 채우라고 부른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며, 특별한 은총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시기를 잘 활용하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하느님께 헌신하여라. 단식과 자제의 9일 기도를 통하여 사탄이 멀어지게 하고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하여라. 나는 너희 가까이 있으며 너희 각자를 위해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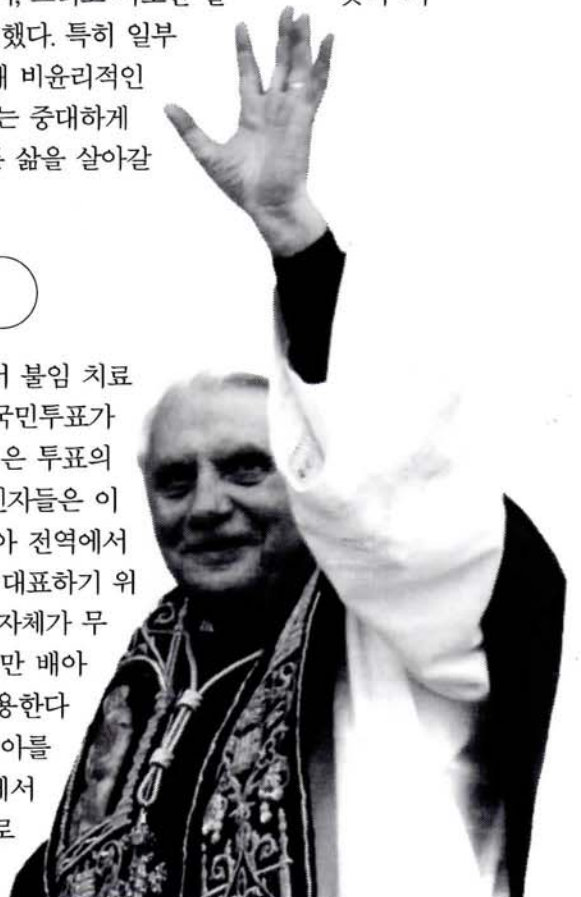
2005년 7월 25일 메시지

"낙태 지지자 영성체 하지 못한다."

교황청은 오는 10월 「교회의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1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을 발표, 낙태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가 영성체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안집은 일부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낙태 등 생명, 정의와 평화에 반대되는 심각한 행위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교회에 속해 있는 의미, 그리고 사소한 잘못과 치명적인 죄의 분별을 흐리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낙태와 같은 생명과 관련해 비윤리적인 선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영성체를 하고있다고 하며 이런 행위는 중대하게 부정직한 행위이며 특히 「교회의 가르침과 윤리적 생활」에 따른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티칸=외신종합】

"생명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생명복제에 반대해 온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호소로 이탈리아에서 불임 치료와 배아복제 연구 규제 완화를 위해 실시된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13일 부결됐다. 교황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생명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면서 투표 거부를 독려했으며 대다수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2~13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25.9%이며 국민투표가 국민 의사를 대표하기 위한 1차 요건인 투표율 50%에 훨씬 미달하여 찬·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번 투표의 대상이 된 개정 법률은 ▲ 생후 8주 미만 배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 생후 3개월 이상 태아에 대한 실험도 허용한다 ▲ 난자·정자 기증을 허용한다 ▲ 한 부부가 기증할 수 있는 배아를 3개 이상으로 올린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황은 이탈리아에서 1981년 합법화됐던 낙태를 다시 불법화하는 운동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6월 15일 경향신문)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 사제와 수도자들을 보살펴 주세요.
- 어머니 마을의 공사와 봉사자들을 봉헌합니다.
- 김아가다의 영육간의 치유와 가정을 봉헌합니다.
- 하루 속히 어머니의 병환이 쾌유되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을 봉헌하며...
- 갑상선으로 고생하는 언니들의 치유를 위하여 ...
-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의 건강, 발전을 위하여...
- 연옥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성모님, 수녀원에 들어간 언니를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세요.
- 이용언, 이폴리나 부부님의 결혼 은경축을 감사드립니다.
-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
- 마약의 유혹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위하여 ...
- 성모님, 아들 가정의 주인이 되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 이종민 이나시오의 영육간의 건강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니와 동생 가정을 보살펴주세요.
-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영혼에게 크신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 저희 가족들의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 기도하오니 보살펴주세요.
- 낙태반대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굳은 믿음과 힘을 주세요.
- 낙태아들의 영혼과 그 부모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 살도록 기도해주세요.
- 군대생활을 하는 아들의 굳은 믿음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 시험을 앞둔 동생에게 힘을 주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봉헌하오니 보살펴주세요.
어머니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늘 보살펴주세요.
- 포트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와 회원들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늘 성모님과 함께 하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 예수님, 소아중풍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크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 홍지유. 김선자. 정카타리나. 민마르코. 양미카엘라. 김헬레나. 공 아녜스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합니다.
- 33차 순례를 떠난 이들이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체험하고 앞으로 기쁘고 굳은 믿음의
생활을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6월과 7월 매주교리에 순례미사때와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보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작성하신 '의탁 기도문'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의 어머니, 당신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모두 알고 계시나이다. 또한 온 세상을 뒤흔드는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을 모성의 마음으로 느끼시나이다. 저희가 성령 안에서 당신의 성심께 직접 드리는 간청을 받아 주시고, 어머니시며 주님의 여종이신 당신의 사랑으로, 애타게 당신의 품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감싸 안아 주시고, 당신께 의탁해 오기를 당신께서 특별히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 주소서.

오 성모님, 깊은 사랑으로 저희가 당신께 맡겨 드리는 온 인류 가족을 어머니의 보호 아래 두소서. 모든 이에게 평화와 자유의 시간, 진리의 시간, 정의와 희망의 시간이 동트게 하소서."3)

"오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들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아시는 어머니, 오늘의 세계를 괴롭히는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을 잘 아시는 어머니, 저희가 성령으로 감화되어 당신의 성심께 직접 드리는 호소를 받아 주소서.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고 봉헌하는 이 인간 세계를 어머니시며 주님의 여종이신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소서. 저희는 모든 사람과 민족의 현세와 영원한 세상의 운명을 지극히 염려하나이다. 당신께 대한 의탁과 봉헌이 각별히 필요한 사람들과 나라들을 특별히 어머니께 의탁하며 봉헌하나이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어머니의 보호에 저희를 의탁하오니',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보소서. 저희는 당신 앞에,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앞에서 있나이다. 당신



메주고리에 발현 24주년 기념일 새왕관을 받으신 성모님

의 성자께서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저희도 온 교회와 함께 저희 자신을 바치기를 바라나이다. 성자께서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9)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구세주께서 세상과 인류를 위하여 당신을 봉헌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을 봉헌하기 바라나이다. 인류는 구세주의 성심 안에서 용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나이다. 이러한 봉헌의 힘은 영원히 지속되며 모든 인간과 민족과 국가를 감싸 안나이다. 봉헌의 힘은 어둠의 영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악, 실제로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인간의 마음과 역사 안에 일으켜 온 모든 악을 물리치나이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인류와 세계 -우리의 현대 세계- 를 봉헌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나이다! 온 세계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나이다. 이 구원의 해는 온 교회의 특별한 회년임을 보여 주나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여종 마리아님, 모든 피조물 위에 찬미 받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당신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구원의 봉헌에 온전히 일치하셨나이다! 교회의 어머니! 믿음과 바람과 사랑의 길을 따라 하느님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특별히 저희를 통하여 당신께 봉헌하고 의탁해 오기를 기다리시는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저희가 현대 세계의 전 인류 가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봉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소서.

“선악에 대한 인식의 상실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오 어머니, 온 세계와 모든 사람과 민족을 당신께 맡기오며, 또한 세계의 이 봉헌 행위도 어머니께, 어머니의 성심께 맡기나이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저희가 악의 위협을 물리치도록 도와 주소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쉽게 뿌리내리는 악들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미 현대 세계를 짓누르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다! 기근과 전쟁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핵전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멸에서, 온갖 전쟁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갓 태어난 인간 생명을 죽이는 죄악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증오심에서, 하느님 자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이 세상에서 사회 생활의 온갖 불의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하느님의 명령을 무시하려는 유혹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억누르려는 시도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선악에 대한 인식의 상실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오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고통과 온 사회의 고통이 담긴 이 호소를 받아 주소서. 개인의 죄, '세상의 죄', 온갖 형태의 죄, 이 모든 죄를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저희를 도와 주소서. 무한한 구원의 힘, 자비로운 사랑의 힘을 세계사에 다시 한 번 드러내소서. 그 힘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모든 이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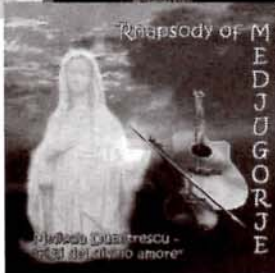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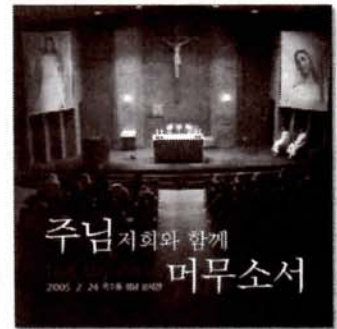
루시아 수녀는 이러한 장엄하고 보편적인 봉헌 행위가 성모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개인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984년 3월 25일에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 1989년 11월 8일자 편지). **M**

(가톨릭 굿뉴스에서 발췌)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우리의 영혼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기도 방법이 성시간입니다. 이 성시간 동안 성체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앙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



세속에서
신앙으로,
마약중독자에서
사제의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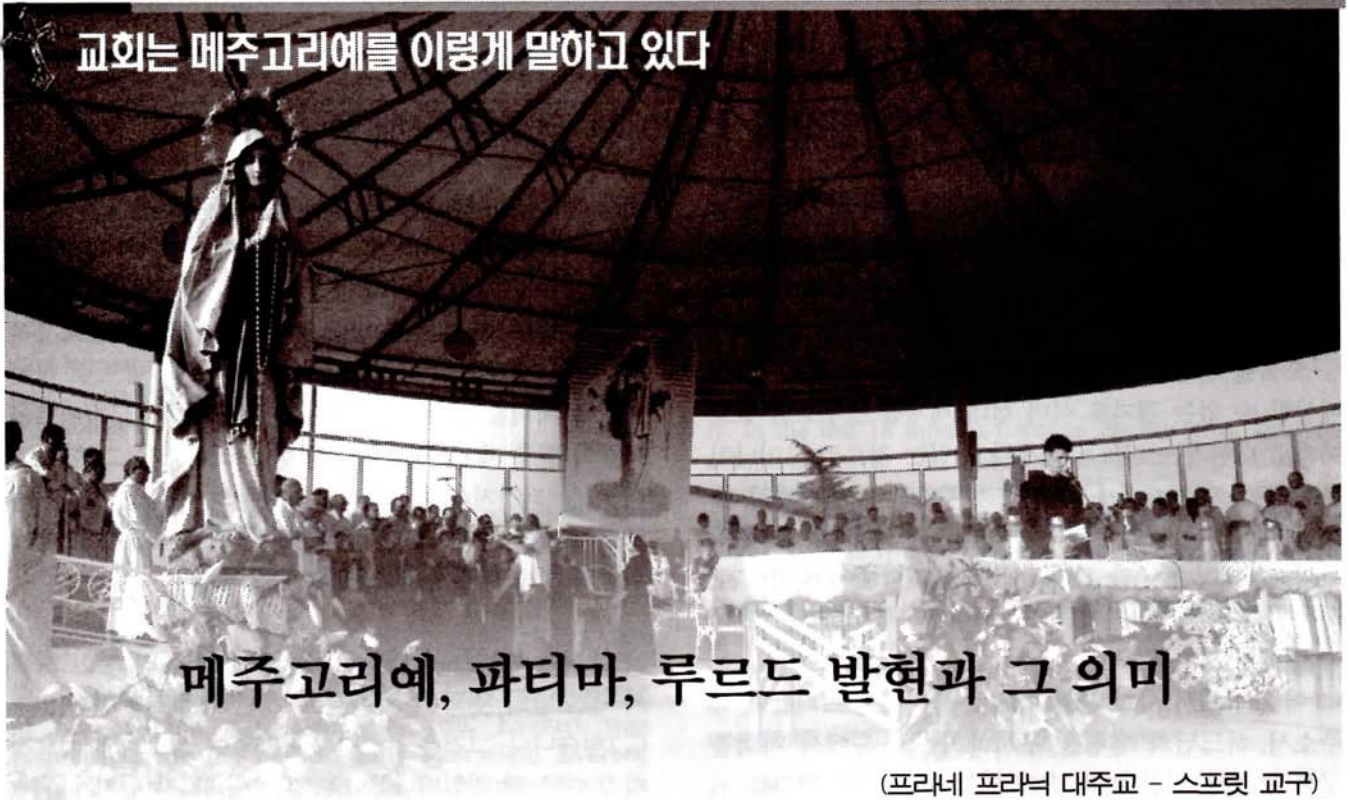
양하게된 체험이 담긴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3 set.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월 메시지 Tape 3set.
- 요조신부님의 다섯 개의 조약돌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평화의모후 선교회 (610-965-6168) • 한국: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부 (010-7310-9678), 바오로딸 (02-9440-807)
• 캐나다지역: 이데레사 (403-288-0469) • LA지역: 성바오로서원 (718-638-3855) • 평화의모후 성물센터 (323-730-1499)

교회는 메주고리에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메주고리에, 파티마, 루르드 발현과 그 의미

(프라네 프라닉 대주교 - 스프릿 교구)

메주고리에, 파티마, 루르드에서의 성모님의 모든 발현은 영적인 연관성이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곳에서 언제나 당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시다. 마리아께서는 루르드에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파티마에서 더욱 분명히 강조하셨고, 지금은 파티마의 메시지를 메주고리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유럽의 나라들이 무신론에 빠져 그리스도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던 1858년에 루르드에 오셨다. 그때 마리아는 사람들을 보속과 거룩함으로 초대하며 당신을 "원죄 없는 잉태" 라고 밝히셨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우리가 지상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1917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파티마에 오셔서 러시아에 만연한 무신론의 위험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며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봉헌하기를 원하시며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사람들이 내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서구의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힘으로써 러시아의 무신론을 막으려 했다. 메주고리에에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신다. "평화는 무기를 통해 오지 않는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족들간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사랑

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성모님께서서는 민족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 주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인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민족들 사이에 또 종교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하느님을 인정하는 모든 종교와의 우호적인 대화를 모색하며, 하느님을 믿지 않으나 양심에 따라 살면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확인시켜 준다.

나는 이 세 곳의 성지가 하나의 위대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는 루르드와 파티마의 메시지에 '사랑'과 '종교', '민족간의 대화'와 '일치'가 추가된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리아께서는 무기로 싸우는 어떠한 전쟁도 찬성하지 않으며, 이해와 존중과 사랑,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사랑을 촉구하신다. 또한 모욕당하고 상처받더라도 언제나 용서해야 한다고 하신다. 용서, 화해, 속죄, 기도, 단식의 영적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거룩하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수록, 영적 소명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룩함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거룩해지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 긴 시간은 내가 너희를 한량없이 사랑하며 또한 각 사람 모두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표시이다"

(1986.10.19 / 1987.1.1).

마리아는 거룩함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신다.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 특히, 모든 가정을 거룩함으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가정이 거룩함의 성소가 되도록 하여라. 모든 가정이 거룩하게 살도록, 특히 너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여라' (1986.7.24). **M**

(독일 잡지 'Mejugorje'에서)

메주고리예를 순례지와 성지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프란요 쿠하리치(Franjo Kugarić) 자그레브 대교구 추기경, 박사

우리 주교들은 삼 년간 계속된 연구를 통해 메주고리예를 순례지와 성지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에 맞게 하느님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교들은 계속 이를 관찰할 것입니다. 교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1993년 8월 15일 Gals Konicla)

메주고리예 발현 24주년

지난 24년간 성모님의 평화의 메시지는 순례자들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나가 온 세계의 가정에 이르렀다. 그 열매는 메주고리예를 넘치는 평화와 은총, 회개의 장소로 전해져서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기도하는 장소 중의 하나가 되게 하였다.

성모님 발현 24주년 기념일을 맞아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왔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많은 순례자들이 평화의 모후께 기도를 바치기 위해 맨발로 걸으며 메주고리예를 찾아 왔다. 이날 봉헌된 기념미사 때에는 야고보 본당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께 새로운

왕관을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평화의 모후로 오신 성모님께 감사드렸다.

발현 목격자인 이반과 마리아가 성모찬송을 낭송하며 왕관 봉헌식에 함께 했다. 5월 24일과 25일 양일에는 13개 언어로 미사가 봉헌되었고 4만개의 성체가 분배되었다. 24일 미사는 두 분의 주교와 본당 주임인 Valentin Vukoja 신부가 163명의 사제와 함께 공동으로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 많은 사제들이 미사 중에도 순례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어 더욱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념일이 되었다. **M**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레이리아 교구장에게 보낸 1941년 8월 31일자 루치아 수녀의 '세 번째 회고록'에서

... 이것은 비밀에 대한 저의 언급이 필요할 것이므로,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무엇이 비밀이냐구요? 하늘로부터 이미 허락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 여러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한 통은 주교님께서 간직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호세 베르나르도 곤살베스 신부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게 비밀을 밝힐 것을 제안하시면서 교황성하게 편지를 쓰라고 권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간 말씀드렸지만, 짧게 쓰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제 편지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에서 저는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저를 괴롭힌 의심에 대해서, 또한 그 날 성모님의 발현 중에 그 의심이 어떻게 말끔히 사라졌는지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은 세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데, 두 가지 비밀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첫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입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땅 밑에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바다 속에서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에 의하여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 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 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의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커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환시는 잠깐 동안만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에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

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 주신 자애로우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 때 저희가 성모님을 우러러보니, 성모님께서 매우 자애로우시면서도 슬픔이 깃든 어조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자 하신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으로 밤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

티없는 내 성심이 승리할것이다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 다 이리아에서 계시된 셋째 비밀.

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써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징조인 줄 알아라. 이러한 일을 막고자, 내가,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하도록 요청하러 오겠다. 사람들이 나의 요청에 귀 기울인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7)

주 나의 하느님, 레이리아 교구장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을 통하여 제게 이르신 대로 저는 당신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첫째 비밀과 둘째 비밀에 이어, 저희는 성모님 왼편 조금 위쪽에서 왼손에 불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번득이는 불칼은 이 세상을 불태울 것처럼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천사를 향하여 광채를 방출하시자 그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천사는 오

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저희는 무한한 빛이신 하느님 안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나칠 때 비치는 모습과 비슷한 어떤 것' 흰 옷 입으신 주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교황 성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파른 산을 오르시는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도 보았는데, 산꼭대기에는 껌질만 남은 코르크 나무처럼 투박한 몸통의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시기 전에 거의 폐



허가 된 큰 도시를 지나가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절뚝거리시는 발걸음으로 몸을 반쯤 떠시면서 고통과 슬픔에 짓눌리신 채, 도중에 널려 있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르신 교황 성하께서는 그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신 채, 그분을 겨냥하여 총과 활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과 신분과 지위가 다른 많은 평신도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서는 두 천사가 손에 수정 성수반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1944년 1월 3일, 투이M

"나의 요청을 듣는다면, ... 평화가 찾아 올것이다"

이 문서에 제시된 증거 자료에는 루치아 수녀의 친필 원고에 4개의 다른 원문이 추가되었다. 1) 루치아 수녀에게 보낸 교황 성하의 2000년 4월 19일자 편지, 2) 루치아 수녀와 나눈 2000년 4월 27일자 대담 기사, 3) 교황 성하께서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을 국무원장으로 임명하신 2000년 5월 13일자 성명서, 4)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의 신학적 해설.

루치아 수녀는 교황 성하께 보낸 1982년 5월 12일자 편지에서 이미 셋째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암시를 주었다. "셋째 비밀은 다음과 같은 성모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1917.7.13). 셋째 비밀은 상징적인 계시로서, 다음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실현은 우리가 메시지의 요청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요청을 듣는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는 온 세상에 죄악을 퍼뜨릴 것이다..... 우리가 메시지의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실현되어 러시아가 온 세상에 죄악을 퍼뜨려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의 실현을 향하여 조금씩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증오, 복수심, 불의, 인권 침해, 부도덕



과 폭력의 길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사람들 자신이 자기가 받을 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부르시며, 동시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5)

파티마의 셋째 비밀을 공표하기로 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결정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비

극적인 욕망과 죄악으로 얼룩졌으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배려와 보살핌을 충만히 받았던 역사의 한 시대를 종결 짓는 것이다. 역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활동과 창조적인 자유 행위를 통한 인간의 공동 책임은 인간 역사를 세우는 두 기둥이다.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잊혀진 가치들을 상기시키신다. 성모님께서는, 인간의 미래는 하느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창조하는 일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자임을 상기시키신다. ▣

- 신앙교리성 차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베르첼리 명예 대주교 (가톨릭 굿뉴스에서 발췌) -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언인 파티마의 증인 루치아 수녀는 메주고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티마에서 주셨던 성모님의 메시지는 메주고리를 통하여 완성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 홍익 그레고리오 (발행인)

얼마 전에 낙태반대 운동 홈 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있는 여자 고등학교의 성교육 사이트를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곳에는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낙태로 죽어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낙태로 죽은 아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숨이 막히는 충격이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 이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할 수 있을까? 더구나 아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엄마의 몸에서 이렇게 무서운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태아의 사진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 온 수술가위를 작은 손으로 꼭 쥐고서 놓지 않고 있었다. 손의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작디 작은 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인 듯 가냘픈 그 작은 손으로 차가운 쇠 가위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죽은 아이들의 얼굴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서운 고통을 겪은 얼굴로 일그러져있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주는 죽은 아기들의 몸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조각 조각으로 분리 되어있었다. 그리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태아들의 몸에 온통 시커멓게 피멍이 든 것 이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수술기구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 엄마의 자궁벽에 부딪힐 때 생긴 피 멍이라고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에서 가장 처참하고 일방적인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낙태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그 잔인함에 소름이 끼친다. 아기의 사지를 절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금물이나 독극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죽인 후에 유도분만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물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기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 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발 모르고 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세상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그 후손들이 그 피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마태오, 27장: 25.) 그 민족들이 겪어 온 과거의 역사는 그 피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시대의 인류는 태아들이 흘리는 그 무죄한 피를 언제까지 자신들의 손에 묻힐 것인가? 그 최악의 대가는 누가 질 것인가? 당사자들인가? 아니면 그들의 후손들인가? 성서는 하느님께서 불 칼을 세우시어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1: 24.)라는 말씀으로 생명은 창조주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20초마다 한번씩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으며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되고 있는 한국의 낙태율은 세계 2위라고 한다. 신앙의 열기가 세계 어느 곳 보다 뜨거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낙태반대에 헌신하고 있는 분은 이것은 80년도 말에 나온 기록이고 지금은 2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그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숫자라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태아들까지 합치면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한다.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태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낙태반대 단체 (Pro-Life)의 투쟁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통계에 의하면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불임증과 육체적인 후유증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리고 한 사제는 이들의 겪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낙태를 경험한 분들이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정신적인 고통은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죄책감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오늘 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다. **M**



생명은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인천 교구장

1. 낙태를 시술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가 수태하는 순간부터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교리 성이 1974년 11월8일 반포한 (인공유산반대선언문)중 "실제로 인간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생명인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대목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서 자식을 살해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살해된 아이는 이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만나 보겠습니까?

낙태는 어미 뱃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탓도 없고 저항력도 없는 아이를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살해하는 행위인 낙태는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도 낙태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혼모들이 주로 염려하는 "사회적인 비난"이나 "장래 계획의 지장"도 기혼자들이 주로 고민하는 "단산" "건강" "경제형편" "터울조절" "남아선호"나 "아이의 장애 가능성"도 명백한 살인행위인 낙태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 낙태를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2 낙태를 권유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아기를 잉태한 사람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부모, 남편, 형제 등이 있다면 그들 또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권하는 것만큼 큰 죄가 또 있겠습니까?

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마태 18.7) 한 생명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알아 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가 죽을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진리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은 아기를 순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혼모의 경우 조용히 교회기관에 알려서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교회 품에 맡겨야 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나아서 키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돌보심과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도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학협회 소속 산부인과 및 부인과 전문의307명 중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는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톨릭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를 열 군데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의 70%이상이 낙태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보면 모두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태아도 한 생명입니다. 한 인간입니다. "낙태"라는 살인행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바란다면, 내세를 바란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이세상을 천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영원한 세상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낙태를 시술해서는 안됩니다.

낙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4. 낙태를 돕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낙태를 하는데 가담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낙태를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데 함께 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내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마태12,30)



251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법적으로 낙태죄는 일반 살인죄 보다 더 중한 죄로 여겨 자동적으로 파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교회법 제 1398조)

다만,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위해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와 파문처벌을 사면해 주도록 사목적인 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잠 벌에 대한 보속은 신자들이 메워야 할 몫입니다. 낙태를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해성사를 보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종교인 가톨릭 신앙으로서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윤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자연법과 신법은 생명자체의 존중을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이를 매장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매장하는 사람입니다.

5. 낙태는 만 악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삐 풀린 낙태허용 풍조는 만연한 청소년의 성범죄, 미성년윤락, 미혼모, 인신매매, 남녀성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인명경시의 온갖 사회범죄를 초래하는 만 악의 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락을 위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향락주의를 그 기저에 깔고 있는 낙태행위는 사회의 기초질서인 가정을 위협하는 흉악한 죄악입니다.

낙태는 부부간의 신의를 격감시키고, 가정의 불화와 이혼, 간통 그리고 근친상간, 존속살해까지 서슴치 않는 온갖 반인륜적인 범죄를 낳게 되기 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진통 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면 낙태 죄가 됩니다.(형법 제269, 270조) 분만 중이거나 분만직 후에 아기를 살해하면 살인죄(형법 제 250조) 또는 영아 살해 죄(형법

우리는 그 동안 신자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 무지한 국민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간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인 무죄하고 억울한 태아의 "피가 땅에서 하느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창세 4.10) 우리모두 생명보호에 앞장섭시다.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혜1,13) **M**

기사제공 손유정 엘리시벳

당신의 생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만 해도 태아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태생학 또는 발생학, 태아학(Fatology)이 없었다. 그래서 "태아는 인간인가"하는 문제는 개인신앙이나 감각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발전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과학적으로도 태아가 유일하고 독특한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 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受精兒: 受精卵이 아니라)가 창조된다. 이것은 다른 물체가 아니라 인간이다. 수정아는 인간의 모든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죽을 때까지 인간이 되기 더 필요한 것이나 위해 부족한 것이 없다. 단지 몸의 성장만을 키워갈 뿐이다.

이 수정아는 모체와는 완전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뿐이지 그의 성장이나 세포의 재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모체의 자궁과 연결시키는 태반의 시초를 자기 세포로부터 발생시키고, 착상 후 3일 내에 모체에 호르몬을 보내 "내가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월경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호르몬 정보를 통해 어머니의 가슴을 부풀려 줄 것과 후의 분만을 위해 골반도 부드럽게 만들 것도 요구한다. 18일



임신 40일의 태아



임신 8주의 태아

이 되면 어머니와는 다른 혈액형(또는 같은 혈액형)의 피를 심장이 뿜어내며 피를 순환 시킨다. 40일 되면 이미 뇌파가 측정된다. 뇌와 뇌간의 기능을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하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이 태아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의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때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초기이며, 또 낙태를 고려하는 시기도 이 때 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때 낙태시키는 물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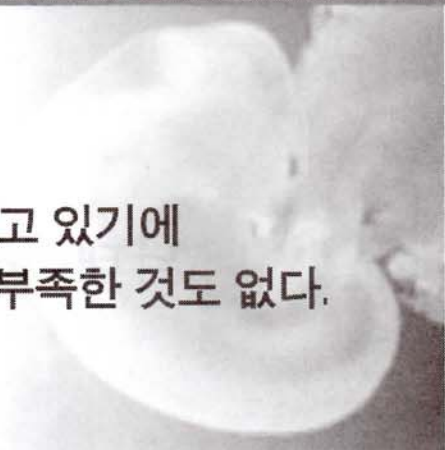
6주가 되면 고통도 느끼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반이 되면 젖니의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뚜렷한 지문도 발견된다.

이 때 태아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히 반응한다. 태아의 위는 아직 굳은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도 위액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초음파 녹음을 통해 심장 고동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엄지 손가락을 빼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11주에서 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한다. 이 운동을 통해 호흡기관을 키워 가고 있는 것이다. 또 11주에는 삼키기도 하고 손톱도 생긴다. 12주가 되면 모든 기관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고 정상작동을 한다. 자고, 깨고, 맛보고, 듣고...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자궁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크기만을 키워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주에서 12주 사이의 태아가 가장 많이 낙태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4주가 되면 청각을 사용하여 듣기 시작한다. 듣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아기가 낙태된다면 그 아기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일까? 이와 같이 수정아로서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되는 성장의 리듬을 타고 모든 인간은 22세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임신 6개월 쯤의 아기가 인간

수정된 태아는 모든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이상 필요한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이 아니라면 이 물체가 자라서 어떻게 인간으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앞서 말한 태아의 발생, 성장과정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이 과정 중 어떤 과정이라도 건너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이 무생물, 또는 비인간에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 혁명적이고 돌발적인 변화에 의해 전이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필자에게 설명해 준다면 필자는 다시 낙태지지의 최 일선에 설 용의가 있다. "태아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낙태라는 의료가 개발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지 본래적으로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는다면 "저 수정아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일까, 또 법적으로 인간 권리가 있는 개별 인격체인가"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오, 내 아기"라고 탄성부터 지를 것이다. 바로 여기에 '태아는 인간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인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의 편의를 위해 쉽사리 낙태하는 세태 속에서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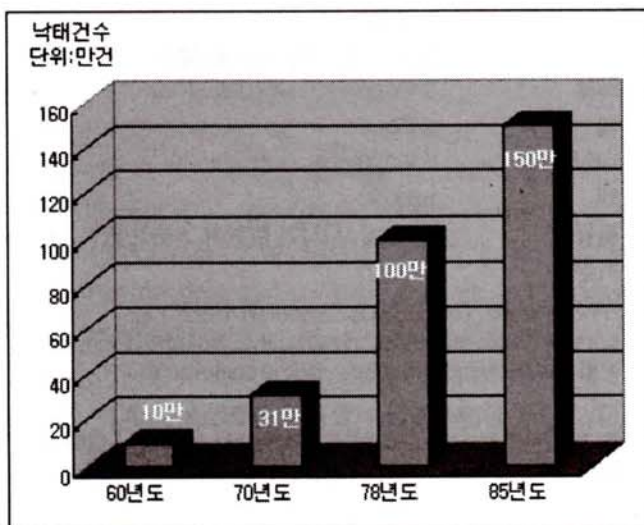
임신 21주 때 조산한 아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도덕적으로 눈을 감아 버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음에 따라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도덕성을 보이는지 다음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임신 21주 때 조산한 아기의 사진이다.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 주기 위해 간호사의 결혼반지를 팔뚝에 끼워 보았다. 만약 어떤 의사가 이 아기를 사망에 이르도록 의료조치를 취했다면 그 의사에게 형법상의 살인죄를 적용하여 구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는 질문이 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인간이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같은 상황이라면 낙태를 고려할 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리아가 만약 예수를 낙태했다면? 이제 태아가 의학적으로 분명히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해답을 얻었다면, 당신은 낙태라는 행위를 어떤 단어로 규정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M**

(www.prolife.or.kr에서 발췌)



낙태아들의 부분조직 판매 가격

국민들이 바친 세금으로 운영되는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는 소위 말하는 '태아 조직 상인들, 즉 죽은 아이들의 몸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 많은 사립 재단에서는 물론이고 NIH같은 국립재단에서도 의학 실험이라는 미명으로 이런 끔찍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3월 9일, 국회 상임부 공청회 (House Commerce Committee Hearing)가 열렸고, 거기 참석한 증인들의 소름 끼치는 증언을 듣고 국회의원들은 공포에 질렸다. "심상한 조직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 나온 아이의 흉곽을 분리시켜 피를 쏟아 버립니다." 태아 실험을 주장하는 한 증인은 오히려 "엄연히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있고, 태아조직으로 실험하라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대어주고 권장하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죽이든, 조직을 어디서 구하든, 태아조직을 팔아서 돈을 벌든 그게 무슨 상관 있느냐?" 라고 흥분했다.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은 서서히 말살되어가고 있다. 낙태를 합법화 시켰을 때 사람들의 양심은 무디어 졌고, 태아 실험에 과학이라는 명칭을 달아 주었을 때 사람들의 양심은 질식을 당했으며, 죽은 아이들의 몸을 분리해서 가격을 붙이고 매매를 하기 시작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린 것이다.

부분출생 낙태를 불법화 시키려는 법안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몇 번이나 통과 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여전히 합법적으로 부분 출생 낙태가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태아 조직 상인들에게는 부분 출생 낙태로 죽은 아이들의 몸이 인기 상품이다.

다른 낙태 (D&C, D&E)는 자궁 내에서 아이들의 사지를 가위로 자르고 머리를 부숴버린 후 하나씩 끄집어 내어 쓰레기로 내버리지만, 부분 출생 낙태는 배 속에서 다 큰 아이를 가위로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의

몸 전체를 자궁 바깥으로 유도 분만해서 빼내고 머리만 미처 나오지 않았을 때, 끝이 둔 한 가위를 아이의 머리 뒤로 쭈서 넣고, 가위로 두 개 골에 뚫은 구멍을 넓혀서 흡입기를 집어 넣고 뇌를 빨아 내어 죽이는 방법이다. 아래는 태아의 조직을 판매하는 청구서에 적힌 가격이다. **M**

간 (8주 이상)	\$150.00 (많이 조각 난 간 30%로 할인)
간 (8주 이하)	\$125.00 (많이 조각 난 간 30%로 할인)
비장 (8주 이상)	\$ 75.00
비장 (8주 이하)	\$ 50.00
췌장 (8주 이상)	\$100.00
췌장 (8주 이하)	\$ 75.00
흉선	\$ 75.00
내장	\$ 50.00
콩팥	\$125.00
사지	\$150.00
뇌 (8주 이상)	\$999.00 (많이 조각난 것 30%로 할인)
뇌하수체	\$300.00
골수	\$350.00
귀	\$ 75.00
눈	\$75.00 (한쪽 눈 40%로 할인)
피부	\$100.00
폐	\$150.00
심장	\$150.00
태	\$600.00
몸통	\$500.00 (사지가 찢렸거나 붙어 있는 것)
척추	\$325.00

"Prices in effect through December 31 1999" Our company also offers incentives such as volume discounts and free body parts for high-volume customers.

(이 가격은 1999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가격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가격할인 혜택과 함께 신체 일부를 무료로 드립니다.)

낙태시술방법 의 유형

(1) 아래로부터의 추출

- (a) Menstrual Extraction :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의 형태로 흡입방법으로 양수막 전체를 흡입 추출한다.
- (b) Suction Aspiration : 임신 8주에서 12주의 경우 시행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자궁 경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스펀쿨럼이라고 부르는 기구를 임신부의 질에 삽입해서 질을 넓혀 놓는다. 자궁 경부가 보이면 테너쿨럼이라고 부르는 집게로 자궁 경부를 단단히 붙잡아 둔다. 그리고 확장기 세트를 사용하여 썬션 팁(흡입구)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제로 자궁 경부를 벌린다. 적당히 벌려지면 흡입구를 삽입해 양수막을 터뜨리고 진공청소기의 30배 정도의 흡입력을 가진 모터를 작동시켜 자궁 내 태아를 분해해 추출한다.
- (c) Dilatation & Curettage (D&C) : 흡입방법으로 낙태하기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궁 경부를 벌리고 원형의 가위 큐렛으로 태아를 적절히 절단한 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 (d) Dilatation & Evacuation (D&E) : 태아의 뼈가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게 되어 꽤 딱딱해진 경우 D&C로 낙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집게를 삽입해 태아의 각 부분을 힘으로 절단한 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출혈이 가장 심한 시술이고 산모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2) 약물에 의한 추출

흔히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 약 일곱 가지 정도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Salt Poisoning이라는 방법이다. 주사기를 배 위에서 자궁

으로 삽입하여 적당량의 양수를 빼낸 후 대신 소금 물이나 Prostaglandin이라는 독극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살상한다.

그러면 약 3시간 후부터 위기 분만이 시작되어 일반 분만과 똑같은 진통이 오고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이 때 출산되는 아기는 전신이 약물에 의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새빨간 색으로 변해 있다. 이를 가리켜 미국 의사들은 Candy Apple Baby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3) 위로부터의 추출

드물게 있는 - 외국에서는 드물지도 않음 - 후기 낙태의 방법으로 흔히 제왕절개 (Hysterotomy)라고 불린다. 태아를 꺼낸 후 일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과는 달리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의 비닐봉지에 버리는 것이다. **M**

(낙반연 홈페이지에서 발췌)

태아 영적 입양

낙태 반대 운동에 함께 태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시에 영적으로 입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입양한 당신의 아이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당신의 기도로 생명을 구한 아이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아를 입양한 부모 각자는 1년 동안 다음의 기도를 매일 바치시면 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당신께 간구하오니, 낙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영적으로 제가 입양한 태아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태아를 입양하는 문의는 각 지역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낙태아들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 어린 양이신 당신께 침묵 속에 죽어간 수많은 태아들의 영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는 부부들을 축복하시며 생명을 주셨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태아들이 이 순간에도 죽어가오니 저희를 용서해주소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 받고 죄 없이 죽어야 하는 낙태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부모들이 생명은 주님의 축복이며 사랑의 표시임을 알아 더 이상 죄 없는 태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제 1차: 예수님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어제 밤에 우리 엄마와 아빠가 저를 버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두려웠는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고 싶

었는데 오히려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와 아빠가 정말 저를 버릴까요? 예수님, 우리 엄마아빠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2차: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축복 받은 생명인데 엄마 아빠는 저를 받아 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한 식구가 되어 살고 싶

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는 예수님 밖에 아무도 없어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3차: 예수님 기진하여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은, 아니 엄마와 아빠까지도 저를 버리려고 하는데 오직 당신만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받아 주시네요. 예수님, 우리 엄마와 아빠가 당신께 기도 드리던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

가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모를까요? 예수님, 당신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 해 주시듯이, 우리 엄마 아빠도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4차: 예수님과 성모님이 서로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고통을 나누신 성모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울어 주세요. 제게는 나를 위하여 울어 줄 엄마도 아빠도 없답니다.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엄마는 저를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단지 부담스럽고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죽이려는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엄마

에게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짊을 목상합니다.

예수님,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시몬입니다. 저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 아! 당신이 아니시라면 부모에게도 버림 받은 저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부디 저를 받아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6처: 성녀 베로니카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 드리심을 목상합니다.

예수님, 두려움으로 숨도 쉴 수 없는 저에게 베로니카를 보내시어 위로해주세요. 애절한 제 기도를 들으시어 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당신 품에 안아 주세요. 우리 엄마가 가끔은 저를 쓰다

듬는 것을 보니 엄마의 마음도 많이 아픈가 봐요. 예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어 저를 살려 주세요. 제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말 씀해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7처: 기력이 쇠하신 예수님 두 번째 넘어 지심을 목상합니다.

성 요셉이시여, 우리 아빠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제 얼굴을 보지 않아서, 너무 작아서, 저를 죽이기로 했다

면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저는 하느님께서 보내 주신 축복인데 어째서 우리 엄마아빠에게는 제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성 요셉이시여, 우리

아빠가 아무리 살아 가는 것이 어려워도 저와 엄마를 지키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8처: 예수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니다.

오! 예수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는 예수님, 저를 도와 주세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제는 아무도

저의 죽음을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당신께 맡깁니다. 매일 엄마와 함께 숨쉬고 엄마와 함께 생각하는 저의 존재를 엄마가 알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힘들게 결정한 일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마음을 바꿔서 저를 받아 들일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9처: 예수님 세 번째 넘어 지심을 목상합니다.

예수님, 이 넓은 세상에 엄마 아빠의 자리는 있어도 이 조그마한 몸이 있을 자리는 없나 봐요. 오늘 엄마 아빠는 의사를 만나 제가 죽어야 하는 날을 정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의 품속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님,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제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걸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10 처: 악당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초와 쓸개를 마시게 하였음을 목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 방에 들어 온 저 날카로운 집게가 제 몸을 무참하게 집어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어 버릴 거예요. 주님,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버림 받았다는 괴로움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해요. 주님, 당신만은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계셔 주세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합니다.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11 처: 악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저도 잠시 후면 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 하던 엄마의 뱃속에서 저 차가운 쇠덩어리 집게에 곧 온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작

은 내 몸, 조각난 내 몸의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겠지요? 혹시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남아서 엄마에게 고통을 줄까 봐??? 주님, 엄마 아빠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생명이었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조차 없어서 고통 받으며 죽어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했었다고??? 주님,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12 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저 쇠덩어리를 피할 힘이 없네요. 제 작은 몸은 저를 죽이려고 찾아 다니는 저 차가운 쇠덩어리를 피해 도망 다니다 온통 멍이 들었어요. 온 몸이

너무 아파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작은 몸통과 머리뿐, 이미 팔과 다리는 찢기어져서 저에게 없어요. 아! 예수님, 무서워요. 지금 제 머리를 부수어버리자는 의사의 말이 들려요.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도 우리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차라리 빨리 숨이 끊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고 이렇게 슬프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엄마 아빠는 저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저를 받아 주시어 꼭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 드려요. 저를 꼭 기

억해주세요. 아니, 저보다 우리 엄마와 아빠를 기억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13 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어 성모님 품에 안겨드리심을 묵상합니다.

성모님, 저도 예수님처럼 한번만이라도 우리 엄마와 아빠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성모님처럼 저도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웃으면서, 행복해 하면서 눈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쓸데 없는 욕심이겠지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실 예수님이 부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저는 누가 기억해줄까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어 갔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곧 저 더러운 비닐 백에 담겨져서 쓰레기 통에 던져 질 거예요. 제 몸이 저런 곳에 버려지는 것은 정말 싫어요. 저도 주님처럼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눈감고 싶어요. 예수님, 어쩌면 우리 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 우리 엄마와 아빠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제 14 처: 예수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제 무덤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구덩이입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저불은 제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도, 우리 엄마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던 안타까운 마음도... 두려움도...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똑 같은 죄를 짓지 않기만을 기도하렵니다. 예수님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가 마지막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성모님, 불쌍한 저를 당신의 품에 받아 안아 주세요. M

왜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산부인과 의사의 편지

부천 세종병원근무

나는 부천 세종병원에 근무하고 하고 있으며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한지 10년째인데 처음 5년간은 엄청나게 낙태 수술을 했다. 엄청나다라는 것은 그 빈도 뿐 아니라 임신 7-8개월도 겁 없이 했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윤리도덕하며 마음 한 구석에 꺼리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무뎠다. 그런 5년을 보낸 후 개업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낙태수술은 사회법에서 말하는 살인과 같다고 생각하고 이후 그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 생각은 그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원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산전진찰, 가끔 GY수술, 분만, CS 질염 등으로 가능할 것 같아 아내도 동의하였다. 총 수입의 20-30%만 포기하면 되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약 70% 이상 수입이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동네장사라서 낙태 수술환자가 끝나중에 분만 환자가 되고 질염환자가 되는데 낙태환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건비라도 줄이고자 아내와 함께 CS도 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유지비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의원을 처분하고 준 종합병원에 취직해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물론 개업하던 의원을 정리하게 된다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D&C를 하지 않고 개업하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아는 부부는 산부인과 의사로 개업을 했는데 두분 모두 신앙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하지 않고 의원을 유지하려고 남편이 분만을 맡고 아내가 간호원 역할을 하며 지금도 애쓰고 있다.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형제님,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수님을 믿으시리라 믿기에 감히 사용합니다) 각오는 100% 옳고, 훌륭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나는 왜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려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나는 수정난부터 염색체가 26개씩 합쳐져 46개로 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잠재적인 인간이란 표현도하는 데 저는 그냥 인간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에 낙태수술은 사회법에서 말하는 살인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같은 인간이 서로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낙태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동료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많은 데 불신자인 그들조차 예수 믿으면 낙태 수술하면 안되는 줄 알고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내놓겠다고 신앙 고백 하였으면서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내 사전에는 낙태수술이란 없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 (형제님은 왜 낙태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업하면서도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주위에 가까운 친구처럼 윤택하게 살기를 포기하시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아내의 헌신도, 그것도 자발적이고 하느님이 동기가 된 일치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부업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내가 직장을 갖거나 해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둘 다 추천하지는 않는다. 가정교육의 대부분은 엄마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내가 벌어오는 것이 생각만큼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서 낙태 수술을 앓는 것은 당연한데 생활의 다른 면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예수 믿는 산부인과 의사는 이 낙태수술만 안하면 다른 것은 하느님께서 눈감아 주실까? (두서없이 감히 선배된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무례했다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M**



저는 그 아기의 엄마입니다.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수녀의 이야기

전쟁중 폭탄으로 부서진 수녀원의 십자가

이 글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1992년도에 하느님께 일생을 봉헌한 수녀에게 있었던 슬픈 이야기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인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된 한 수녀가 원장수녀에게 보낸 이 편지로서, 그 당시의 비참했던 상황과 전쟁의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다. 사탄은 이 수녀를 선택하여 이 시대에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는지를 시험하였다. 이 편지는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는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메주고리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 이 편지는 관련된 분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편집하였다. -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저는 세르비아 군인들에게 동료 수녀들과 제가 강간 당한 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 고자 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것은 저를 부르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한 서약을 받아 주신 그 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한 일 이였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암담한 심적 고통은 한 여자로서 겪은 치욕스러운 일만을 말하는 것 만이 아닙니다. 저를 당신의 영원한 배우자로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을 이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제 삶의 한 부분에 간직하는 것이 지금의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가르멜 수도사들의 대화록을 읽으며 저도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 주셨습니다. 이 전쟁과 군인들은 제가 소망하던 영원한 계획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10대 시절의 제 일기장에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또 그 누구도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느 날 밤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암흑이 지나가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 생각 난 것은 올리브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의 희망이었던 성소의 길에서 나를 이렇게 산산조각 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도저히 받아 들이 수 없는 이 낮은 길을 통해 어떤 소명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녀원 옆에 있던 수도원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호를 그으며 "이 시간 골고타 산에서는 참되신 파스카의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계시다네"라는 미사 성가를 마음 속으로 불렀습니다.

원장 수녀님,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수 없이 많은 맹세와 제가 견디어야 하는 이 고통과 모욕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 당신께서 분명히 제 곁에 계시다는 것 외에는 제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사오니 당신의 뜻을 제게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고 상처 받은 수 백만 동포들의 아픔에 저 자신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비록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허락된 이 모성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원장 수녀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이 아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의 아픔과 더불어 불명의 강간범들이 저지르는 죄를 대신 속죄하고 전쟁 중인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만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의해 살해당한 제 두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으나 제게 이런 고통이 닥치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녀원에는 매일 같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추위와 배고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18세 정도 되는 소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치욕이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그 소녀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전쟁의 피해자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고 그렇게 고

통 받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너무나 단일하게 살아 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더러운 힘에 의하여 비참하게 부서진 육체와 영혼까지도 약탈당해야 했던 수 많은 내 나라 여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그들은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제 자신도 가장 비천하고 소외 당하는 이들과 함께 있으며 저의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격려와 위로를 믿어 줄 것 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고통의 신비 속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용서하는 수도자의 길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며 고통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과 자유가 있는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 할 때 한 교수님께서 'Alesej Mislovic'의 시를 읽어 주셨습니다. "너는 빛 있는 쪽에서 살도록 선택 받았으니 죽어서는 안된다." 제가 세르비아인들에게 강간당하고 절망에 빠져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날 밤, 그 시는 제 영혼의 향유 같이 마음 속에 끊임 없이 맴돌았습니다.



원장 수녀님, 이제 꿈 같았던 악몽의 시간을 잊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렵니다. 수녀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전화를 주시며 제 태중에 강제로 심어진 그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을 때 제 대답이 없자 수녀님의 음성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결정에 대하여 원장 수녀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싶었으며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했기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제 태중의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식이며 저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비록 제가 바라거나 원해서 얻은 생명은 아니더라도 그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식물을 그 뿌리로부터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섭리에 의하여 땅에 심어진 곡식은 뿌려진 그 곳에서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기와 함께 제가 사랑하는 이 수녀원을 떠나겠습니다. 비록 폭력으로 잉태되었지만 태어날 제 아이

에게는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용서야말로 거룩하신 그 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함을 증거하는 아이로 자랄 것 입니다. 아직은 아기와 제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또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섭리를 믿고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와 함께 다른 여인들이 일할 때 걸치는 낡은 앞치마와 나

막신을 신고 산림지대에 있는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하며 가난하게 살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전쟁과 증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상처 받은 이들의 평화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수녀님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저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특히 어려운 질문들을 삼가 해준 동료 수녀님들의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 우리는 전쟁이 만든 이 가증스러운 범죄 때문에 인생과 신앙의 소명을 송두리째 파괴당한 이 수녀의 이야기에서 메주고리예의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볼 수 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산다는 것은 천 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다. M

(웨인 와이블의 메주고리예저서 3편 Final Harvest: '추수 중에서...')

엄마 수녀님과 아기의 최근 소식

이 체험기를 쓴 수녀님과 아기는 지금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가 수녀님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수녀원의 원장님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 이 수녀님에게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이 아기는 지금 수녀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녀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엄마 수녀님은 평생의 소원대로 다시 수녀복을 입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다. -편집실 주 -



아기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낙태를 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머리를 으깨어 끄집어낸 태아를 보면 아기들은 대부분 이물질이 들어오면 살기 위해 엄마의 자궁 안에서 필사적으로 도망 다닐 때 여기 저기 충격이 가해져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특히 다리 부분은 시커멓게 죽어있다.

그렇게 죽은 태아들을 보면 측은함이나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몹시 기분이 나빠진다. 그렇게 죽은 태아들은 바로 한지에 싸서 냉동창고에 넣어두면 사(死)태아 처리를 하는 인부들이 와서 거두어 간다. 태아는 대부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만 손가락으로 끄집어내면 태아가 가끔 살아 있어 잠시 숨을 쉬지만 그러나 그 태아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한 채 곧 숨이 끊어지고 사(死)태아 처리 반으로 직행하게 된다.

머리 쪽이 자궁을 향하고 있으면 잡아당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링펄셉을 이용해 끄집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안되면 자궁 안에서 분쇄를 하는데 특히 머리를 분쇄하여 흡입기로 빨아 당긴다.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아이를 끄집어 내놓고 보면 그 참혹함에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 나는 그런 수술이 있는 날 밤이면 꼭 기분 나쁜 꿈을 꾸곤 했다. 크고 검은 드럼통 옆에 서서 끝없이 아이들을 그 속으로 던지는 꿈이었다. 그런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 한 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하지만 내가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인 이상 그런 일을 피해 갈 수는 없기에 좀 더 신속히, 좀 더 깨끗이 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를 달랬다.

6개월 이상 되어 유도 분만을 하는 경우 분만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20대 후반인 8개월의 임신

부는 이혼을 해서 아이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낙태를 해달라고 망설임 없이 말하며 고통을 느끼기 싫으니 아예 제왕절개로 해달라는 것이다. 8개월인 경우 제왕절개를 하면 아이가 살아 있을 확률이 대부분이므로 마취를 심하게 하여 아이를 죽게 한 후 수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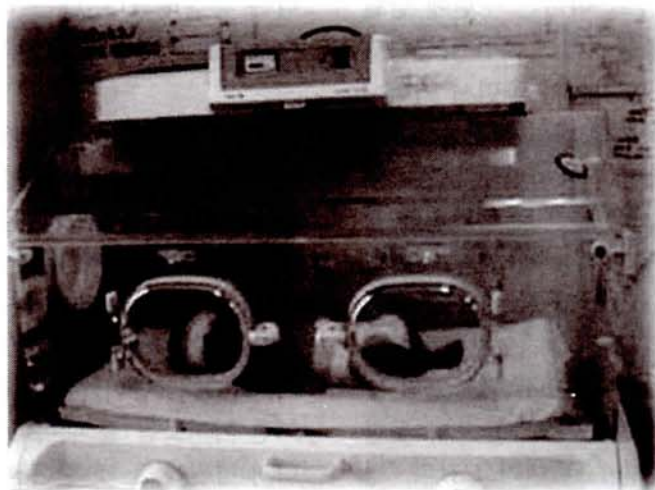
내가 5년 5개월 동안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유도분만을 통한 낙태아 처리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가 무참하게 죽어 가는 일에 힘을 보탤는지 모르겠다. 보통 3개월 이전에 낙태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어느 날 딸들을 가진 부부가 9개월 된 만삭의 몸으로 병원을 찾아와 낙태수술을 원했다. 그들은 생활도 여유가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딸은 둘이면 충분하니 낙태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도분만을 한 후 산모는 회복실로 옮겨갔다.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죽게 마련이나 그 아기는 살아 있었다. 그날 유도 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도 곧 죽어야 할 아기이므로 우유도 안주고 목욕도 시키지 않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간호사들이 약이나 주사기를 담은 바트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통에 담아서 한쪽에다 밀어 놓았다. 그렇게 방치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곧 죽게 마련이다.

그런데 다른 병실을 둘러보고 돌아와 보니 어린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다. 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였다. 나는 곧바로 아기에게 달려가 보았다. 썩썩 숨소리를 내는 그 아기는 분명 살아 있었다. 순간 이 아기를 살려 입양기관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기를 더운물에 씻기고 배꼽 처리를 한 다음 인큐베이터에다 넣었다. 세 시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

9개월이 가까워 오는 아기를 유도분만을 한 후....

가워 따듯한 물 주머니를 만들어 발치와 몸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아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 10시쯤 아기가 죽었다는 전화가 왔다. 그 아기를 처리하기가 무서운 간호사들이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아기는 가련하게도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아기를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아기들처럼 정성껏 잘 싸서 냉동 창고에 넣어 주었다. 여자들의 생명력이 질기다더니 정말 그런 모양이다. 너무나 쉽게 아기를 죽이는 부모나 간혹 살아서 나오는 아기들을 보면 주로 여자 아기들이다. 간혹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다 넣는데 그럴 경우에도 여자 아기들이 죽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살아서 나온 아기들 때문에 일을 치르고 나면 가슴은 아프지만 직업인이라 그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다시 세상에 온다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라고 마음 속으로 빌어준다.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는데 특히 난쟁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기가 죽었다고 말한 후 우리에게 아기를 없애달라고 하였다. 갓 태어난 난쟁이 아기는 한 모금의 우유도 먹어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기이므로 병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트에 넣어 조금만 두면 아기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다. 입양기관에서도 기형아들은 데려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을 입양시키기도 사실은 힘든 일이었다.

또 한번은 항문이 없는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몇 번에 걸쳐 수술을 하면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 수술비만 해도 3천만원이 든다고 했다. 그 아기의 부모는 그 정도 돈을 들일 수 없다면

서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 아기에게는 아주 조금씩 우유를 주었다. 많이 먹을 수록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아기는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결국 그 아기는 사흘 만에 얼굴이 노랗게 되어서 굶어 죽고 말았다.

그 후에도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만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낙태를 시켜 달라는 부인들을 수 없이 만났다. 8개월이 지났지만 딸이라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이다. 보통 3개월 이전에는 흡입기로 간단히 수술이 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지만 6개월 이상 되는 태아를 유도 분만하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나는 눈 코 입이 선명한데다 손발이 버젓이 있는 그 아기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아기를 살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조금 작을 뿐인 그 아기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 선호사상과 인명 경시 풍조로 인해 불과 두 서너 달 후면 태어날 아기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때는 주로 크리스마스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되는 아이들 ...

바캉스 철이다. 가방을 들고 병원 찾는 여고생도 유도 분만을 통해 낙태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와 함께 와서 낙태를 하게 된다. 한번은 고등학교 1학년인 두 아이가 일을 벌려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 아이는 주변에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복부를 동여매는 데만 급급하다 더 이상 숨길 처지가 되지 못한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남자 쪽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얼마나 쫄쫄 매났던지 태어난 아기가 2.45 kg밖에 되지 않았다. 아기는 입양기관에 넘기기로 하였지만 남자 쪽은 행여 수술비를 내야 할까 봐 지레 발을 빼려고 안간힘이었다. 남자는 그럴 수도 있고 딸 간수를 잘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오히려 큰 소리였다. 여자 쪽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수술비만 좀 보태달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보다 못한 내가 남자 쪽 어머니를 병원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당신 아들은 아무 고통도 당하지 않는데 저 집 딸은 어쩌

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10개월 간의 악몽이 지워지겠느냐. 분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돈 몇 푼이 아까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마구 다그치자 그제야 아주머니는 잠잠해졌다. 나는 악착같이 남자 쪽 어머니에게 수술비를 받아냈다. 그 여학생이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 얼굴이 두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삼삼오오 때지어 병원으로 들어오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 아이들은 수술하러 들어가는 아이를 무슨 환송식 하듯 뒤에서 "잘하고 와, 별 거 아냐" 그런 말을 한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주사라도 한방 맞고 나온 것처럼 대단찮게 여기며 "아팠나?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수선을 떤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병원에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불안해진다. **M**



부분 출생 낙태와 아동 살인의 차이는 오직 3인치뿐이다.

브랜다 쉐퍼(Brenda Pratt Shafer)는 어느 날 낙태시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브랜다는 낙태의 자유를 열렬히 지지하는 "선택의 자유파" (Pro-Choice)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낙태 시술소에 일하러 갔다. 브랜다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의사의 곁에서 부분 출생 낙태 (Partial Birth Abortion) 수술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초음파를 통하여 텔레비전 스크린에 보이는 아기의 심장은 심하게 쿵덕쿵덕하며 뛰고 있었다. 의사는 아기의 두 다리를 하나씩 잡아서 엄마의 몸 밖으로 끄집어 냈다. 아기의 엉덩이가 나오고, 허리, 배, 두 팔도 나왔다. 아기의 머리만 미처 나오지 않았다. 아기는 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다리는 바둥대고 있었다. 그때 의사가 가위로 아기의 뒤통수를 뚫었다. 아기는 갑자기 몸을 비틀며 경련을 하더니 잠잠해졌다. 의사는 가위질을 하여 아기의 두개골에 뚫은 구멍을 넓혔다.

그런 다음 고성능의 전기 흡입기를 그 태아의 머리 구멍 안에 넣고 죽은 아기의 뇌를 빨아 냈다. 아기의 몸은 완전히 축 쳐졌다. 죽은 아기가 나왔다. 너무나 끔찍했다. 그때 본 그 아기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나를 따라 다닌다. 부분 출생 낙태와 아동 살인의 차이는 오직 3인치 뿐이다."



"칠십 평생 모르고 지냈던 나의 죄"

순례자

"모든 사람이 목주를 들고 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마을, 매일 저녁 3시간씩 기도하는 마을, 나는 매주 고리에 순례를 가서 내 일생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하루를 성모님의 현존하심 속에서 기도로 보내며 매일 저녁에는 성 야고보 본당의 저녁 예절에 참석하며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저녁 예절에 참석하려고 일찌감치 성당 안의 감실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번도 보지도 못한 아이임에도 웬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 곳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어디서 봤을까? 이상하게 내 앞을 지나가던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아이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나를 쳐다 보면서 다시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참 힘들 때 임신을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유산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 아이가 살았으면 지금쯤 몇 살이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 날은 마치 내가 낙태시킨 아이의 얼굴을 본 것처럼 너무나 그 아이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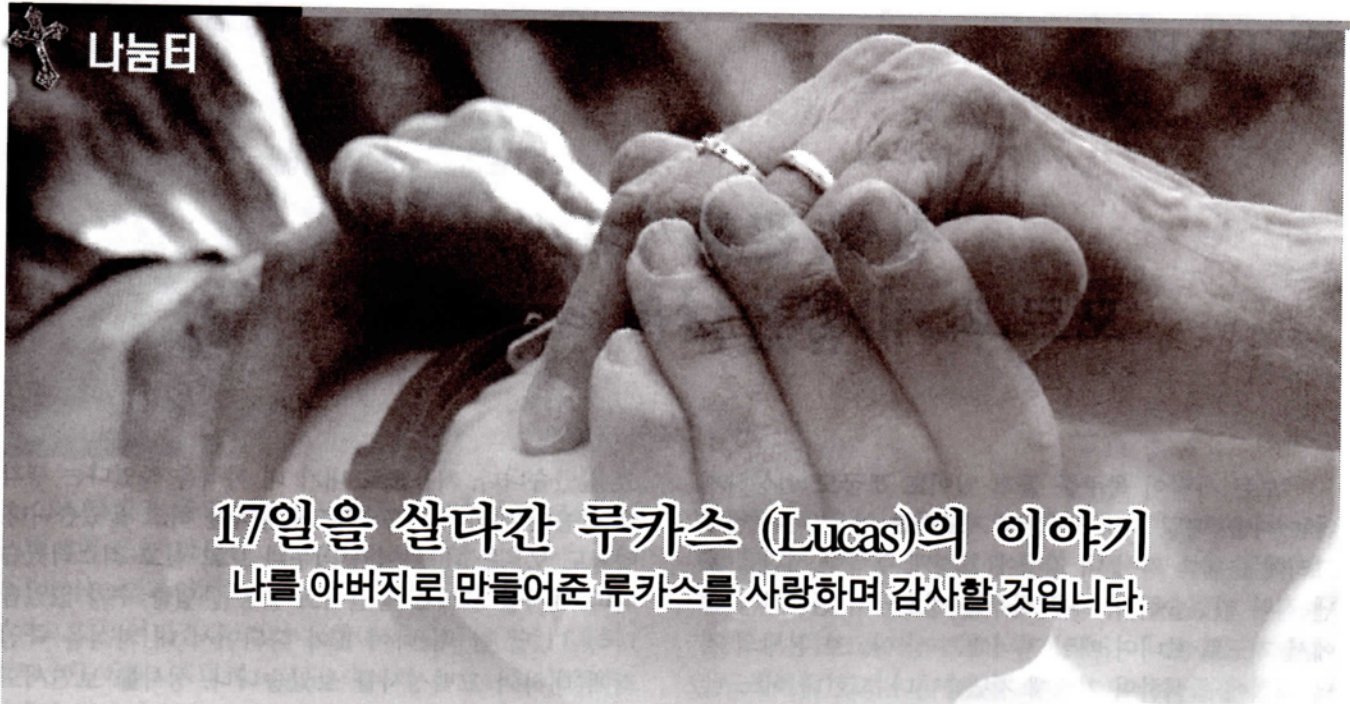
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내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고 죄스러웠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밤 내 나이 70이 다되어서 내 자식을 죽인 죄에 대하여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성사를 보면서도 지금 살아 있는 자식들과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마냥 울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지만 그렇게 내 손에 죽은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 한번 하지 않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죽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 동안 죄인지도 몰랐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지금도 낙태되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M

- 이 할머니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엄마

임신 중 유방암에 걸린 한 여성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출산 뒤 숨졌다. 캐나다 여성 가브리엘 헬름즈(38)는 지난해 12월 임신 26.5주(6개월 반) 만에 몸무게 1.5파운드(0.68kg)인 조산아를 출산했다. 아기의 이름은 한나 가브리엘 헬름즈-쇼어. 어머니 헬름즈는 아기를 낳고 이를 뒤 숨졌다. 헬름즈는 출산 1달 전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3년 전 완쾌했으리라 믿었던 암이 재발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임신 22주였다. 헬름즈는 출산을 포기하고 방사능치료를 받아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했다. 헬름즈는 이런 결정을 내린 뒤 1달 동안 태어날 아기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캐나다 밴쿠버의 한 병원에서 암과 사투를 벌였다. 암에서 오는 고통이 극심했지만, 남편 로버트 쇼어가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준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 아내가 숨진 뒤 남편 쇼어는 "딸 한나가 엄마 없이 자라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인지 훗날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내셔널포스트)



17일을 살다간 루카스 (Lucas)의 이야기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루카스를 사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장애인 부부가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는 간절히 아기를 갖기 원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렵게 세 번째 아기를 갖고 기도하던 중 임신 초기에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 아기가 살아있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던 그들에게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들의 뱃 속 아이는 현재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공유산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뇌가 골 밖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장애였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호흡장애를 일으킬 것이기에 아마도 15분을 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순간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가?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애뜻하게 사랑하며 어루만지던 그 생명을 이제 죽여야 하다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의사에게 아이를 계속 뱃 속에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그 말을 냉정하게 잘랐다. 그럴 수 없노라고...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 받아야 할 상처는 지금 아이를 유산시킬 때 받게 될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에 의사인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의사는 마침내 화를 냈지만, 결국 부부는 그 아이를 키우기

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Lucas)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몇 달간의 시간을 루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들은 매일 루카스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불러주었고, 기도했다. 그 부부는 루카스를 눈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기에 매일 그 아들과 몸과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루카스가 살아있음이 느껴질 때마다 그들은 생명의 신비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했다. 루카스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은 혈관을 타고 작은 루카스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간절히 기다리던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긴장과 두려움, 감격 속에서 루카스가 태어났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나 루카스의 머리 뒤에는 뇌에서 빠져 나온 덩어리가 달려 있었다. 부부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루카스를 할 수 있는 한 엄마의 품 속 깊이 안아주었다. 부모와의 피부접촉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였다. 그들은 루카스가 조금이라도 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어린 핏덩이가 이 세상 어떤 것 보다 더 귀한 보물처럼 가슴 깊이 껴안고 있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 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주어진 15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살

아있었다. 루카스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집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작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나날이었다. 루카스를 위해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매일 선물을 안겨 주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러 날마다 작은 파티를 베풀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며 기뻐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었으며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꿈 같이 지나간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17일 동안 살아 온 그의 짧은 인생을 마쳤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루카스를 떠나 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채플의 홀에서 루카스를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는 장

례식이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단 위에 놓인 작디 작은 관 안에는 루카스의 아름다운 시신이 잠들어 있었다. 모두가 루카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헤어짐을 슬퍼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앞으로 걸어 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의 침묵을 깨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자신들의 아들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웠으며 행복한 시간들이었는지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과 대화를 루카스와 나누었는지를... 루카스가 떠난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루카스를 회상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준 내 아들 루카스를 영원히 사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M



요조신부님과 함께 하는 피정과 메주고리에 순례

신부님께서서는 한국 신자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메주고리를 찾아오는 단 한 사람의 한국 신자들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단일언어권으로나 신자수로 보았을 때 가장 작을 수도 있는 한국신자들 피정을 위해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피정입니다. 이 피정은 신부님께서 설립하신 보스니아 전쟁고아들을 위한 성 가정 고아원에서 신부님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 묵상하는 피정입니다. 또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던 강의들과 달리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능동적인 침묵 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삼식을 하며 수요일과 금요일이 피정 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신부님과 함께 물과 빵으로만 식사를 하면서 피정과 단식기도에 임합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정말 놀랍도록 좋은 은총이 풍성한 피정입니다. (남기옥 마르타 선교 학 박사)

- 순례지도 :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 강의지도 : 요조 즈브코 신부
- 한국어통역 : 남기옥 마르타
- 일시 : 2005년 11월 1일부터 13일
(요조신부님 피정 : 4박5일/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순례 : 7박8일 총12박 13일)
- 장소 : 요조 신부님이 운영하는 성 가정 여자 고아원 기숙사
-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 (현재 제한된 인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남그레고리오 형제
e-mail: gregorynam@hotmail.com



이 아이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마리아 동생의 출생비밀



"목이 없는 아이를 낳아 어찌려고 그러는가? 평생 아이의 수발을 들며 살아야 되네.. 자네가 늙고 병든 후에는 어찌 할 텐가, 그 아이는 누가 돌보지? 안된 말이지만 두 아이를 다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네."

1980년 둘째 딸아이가 아내의 뱃 속에서 임신 7개월째 됐었을 때였다. 첫째 아이 때보다 유난히 배가 너무 불러 아내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면서 무척 고생을 했다. 그런데 다니던 병원에서 X-ray 검진을 하니 뱃속의 아이는 쌍둥이임이 판명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첫째 아이는 목이 없는 기형아의 모습으로 판명되었다. 태어나면 평생을 기형의 불구로 살아야 하고, 평생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내와 나는 충격으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듬어주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피붙이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사진으로 보이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로 정신 없이 지내게 되었다.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진찰을 하는 의사들 모두 한결같이 7개월이나 된 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버리라는 것이었다. 아내의 슬픔은 절정에 달했고, 나 역시 미래에 닥쳐 올 내 아이들의 불행에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뱃 속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아내의 뱃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강력하게 낙태를 권고하던 이박사에게 다시 찾아가 아이들을 죽이는 수술을 하겠다는 결심을 알렸으나 차마 아내에게는 말을 못하고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다. 아이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면서 성당에서도 집에서 하루 종일 목주의 기도만 올리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 한번 더 또 다른 병원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최명

학박사님께서서는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병원을 개업하신 나와 같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시다. 산부인과 의사로 실력을 인정 받아서 정평이 나있으나 낙태수술을 끝까지 거부하시며 어렵게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그 분 앞에 우리 부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 아이는 온전한데 어찌 버리시려 합니까? 그리고 기형이라 하지만 그 아이도 세상에 나와봐야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천주님 앞에서 살인을 하려 하십니까? 아이들은 벌써 7개월이고,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꾸짖음이 30분 가까이 계속 되었다.

최박사님의 간절한 목소리는 낙태를 하려고 했던 우리 부부의 잘못된 결심에 채찍을 가하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를 주셨고, 사랑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셨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 할 용기를 주셨고, 둘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은 천주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것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낙태를 권하던 이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생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한 아이는 살리렵니다." 최박사님은 병원 측에 요청하여 내가 분만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도와 주셨다.

드디어 분만실에서 아내의 산고의 비명과 함께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숨이 막히는 긴장이 온몸을 휩싸 안고 지나갔다. 얼마 되지 않아 분만실의 문이 열리고 하얀 시트에 싸인 첫아이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신생아 실을 향하는 간호사 아가씨를 뒤따라 갔다. 하얀 시트에 안긴 첫 아이를 보았다. 채 식지 않은 양수로 범벅이 된 채인 딸아이가 아내를 닮은 두꺼운 쌍꺼풀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빠를 쳐다보는 까만 눈동자가 참 예쁘다.

X-ray에서 본 형상대로 마치 물고기처럼 목이 없이 가슴과 얼굴이 붙어있었으나 흡사 "아빠~ 고마워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신생아실까지 10여 미터를 같이 걸었던 그 시간은 내가 그 아이와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녀간 산책이었다. 그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들어간 후 갑자기 간호사들의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진다. 악 !!! 어머~ 목이 없는 아이를 보고 놀란 간호사들의 비명소리이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손놀림을 바라보며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것도 잊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대로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사이 태어난 둘째도 신생아실로 또 들어가고 ...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는 신부님도 수녀님도 안계시니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다가 "첫 아이 세례명은 마리아로 할테니 그리 알거라"하시며 신생아실로 들어가셨다.

기진맥진하여 산모실에 누워있는 아내는 눈으로 묻는다.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꼬옥 잡아주었다. 아내는 차마 아이가 어떻더냐고 묻지도 못한다. 아이의 심장이 어떻게, 뇌의 산소 공급이 어떻게, 호흡이 어떻게 ... "사망했습니다" 이 모진 아빠는 의사의 그 마지막 설명과 사망선고를 원하고 있었을까...나를 안도케 하는 죽음이었을까 ... 평생의 명예를 벗게 하는 죽음이었을까 ... 찰라처럼 잠깐 뇌리를 스쳐간 아빠의 비정함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죄책으로 남아있다. 나를 쳐다보던 그 굵은 쌍꺼풀의 예쁜 눈동자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 성호를 긋고 아이가 편안한 세상으로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둘째 아이는 "카타리나"로 본명을 지어주었다. 24킬로그램으로 태어난 둘째는 황달이 오면서 1.7킬로까지 체중이 줄었다.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넘게 몸을 키워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면서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대가 끊어져도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자. 당신이 더 소중한니까." 그리고 장손인 우리 집안의 대는 동생으로 이어져 있다. 사흘 전 나는 가게에 출근하는 25살 딸아이에게 운전을 하면서 25년간 숨겨져 온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었다. 가톨릭 신앙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최박사님이 아니



었으면 너를 버릴 뻔 했노라고. 희정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사연을 듣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4월 21일, 딸아이의 생일날이 먼저 간 "마리아"의 기일이기도 한 기쁘고도 슬픈 날... 25년 동안 우리는 마리아를 까맣게 잊고 케익을 자르며 살아왔다. 24킬로로 태어나 씩씩하게 잘 자라온 마리아의 쌍둥이 동생 희정이가 자랑스러울 뿐이다. "주여 이 아이를 제게 주셨음을 감사 드리웁니다." M

2004년 11월 12일 두꺼비 호갑수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지문위원장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Monthly Message and Reflection



"Dear children! Today I thank you for every sacrifice that you have offered for my intentions. I call you, little children, to be my apostles of peace and love in your families and in the world. Pray that the Holy Spirit may enlighten and lead you on the way of holiness. I am with you and bless you all with my motherly blessing.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ssage of June 25, 2005

Our Lady concludes each one of her messages by the words: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With her gratitude, she seems to want to motivate and wake up our hearts, so that we listen to her and walk on the way of conversion and holiness. Today, she is appreciating us for every sacrifice that we have offered for her intentions. In preceding messages for the

anniversary of her apparitions, she was saying: *"Today I desire to thank you for all your sacrifices and for all your prayers."* (25.6.1990). *"Today I am happy, even if in my heart there is still a little sadness for all those who have started on this path and then have left it."* (25.6.1992). Although she knows that all her children will not accept her motherly words, she is not giving up, still she believes and she hopes. This is why she was saying: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desire to understand my messages and to accept with seriousness what I am saying. But you I therefore call and ask that by your lives and by your daily living you witness my presence."* (25.6.1991).

Our Lady's messages reveal to us the heart of Mary and they speak to us about it. It is the earnest of the mother who loves her children. This heart is grateful for every sacrifice, which we have offered for her intentions. We need to pray and, from day to day, to offer our hearts to the Heart of Mary, so that we also become grateful.

Only a blind man does not see that all in life is given to us, and that nothing belongs to us: neither the earth, nor people, nor our body, nor life that God gave us. Everything is a gift of God. Only a humble, pure, and simple heart discovers the greatness of the love of God and of the gift of God. Only a hear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ike the heart of St. Elizabeth, exclaims: "And whence is this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Lk 1,43). The heart of Elizabeth is grateful because, in the Visitation of Mary, it recognizes the gift and the blessing.

God has created everything for us, and not for any reason, and not anyhow, but magnificently, marvelously, and out of love. We should relearn the alphabet of the language and converse with God. We need to learn how to say "Thank You"; and not only superficially, with our lips, our mouth, or our reason, but with our whole being and with our whole life.

God gave us more than life and all that He has created for us; He gave Himself to us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Jesus Christ, in the fullness of life and love, gave Himself in the Church and through the Church in the sacraments, especially in the Eucharist.

In these days and in this time, God sends to us also the Mother of His Son and our Mother, so that we may become her apostles of peace and love in our families and in the world. Our families and the world need people who will spread peace and love, because there is too much disorder, too much fear, too much darkness and too much

What is Eucharistic Adoration?

wickedness among us.

Gospa, who dwells in the glory of Heaven, and who comes and speaks from this glory, knows that love and peace are stronger, and that it is worthwhile to love and to spread peace. Mary, our Mother, knows that we cannot do it by our own forces, and this is why she is advising us to pray to the Holy Spirit by whom she conceived Jesus. She is encouraging us to pray to the Holy Spirit, whose force and power made it possible to the apostles to become fearless witnesses of Jesus, until the shedding of blood. We cannot do it, but the Holy Spirit in us can do it. We are called to holiness and to the sanctification of our life. Saint Paul reminds u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1 Thess 4,3) Only on this way of sanctification and of holiness can we experience the joy and the truth of the words of the Scripture: "Rejoice even more.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 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1 Thess 5,16) We are neither alone nor abandoned. Mary, our Mother, is with us and she is giving us her motherly blessing.

Fr. Ljubo Kurtovic



"What is Eucharistic Adoration?"

Catholics believe that during the Mass which we attend each week (for some of us daily), the priest (during the consecration) speaks these words as he holds the communion host, "...*He took bread and gave you thanks. He broke the bread,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Take this all of you, and eat it: this is my body which will be given up for you*". When the priest says "this is my

body", it is at that instant when, through the miracle of transubstantiation, the bread and wine which we offer as the bloodless sacrifice to our Lord truly become the Body, the Blood, the Soul and the Divinity of Jesus. It is His true Presence in the form of bread and wine. It is Christ.

"What do you actually do during adoration?" You may sign up to be an "adorer" which allows you to schedule yourself for one or more hours per week to pray before the very presence of Our Lord, exposed in the monstrance. It means that you can have some time alone with Jesus to recite your favorite prayers, read the bible, contemplate acts of faith, hope, charity, thanksgiving, reparation, pray the rosary or do whatever type of prayerful devotion that suits you before Our Lord. You can just sit and say nothing simply keeping Him company, just as you would with a dear friend.



Twelve Reasons From The Teachings Of The Church For Wanting To Spend One Hour With Jesus In The Blessed Sacrament

1. You are greatly needed!

"The Church and the world have a great need for the Eucharistic Adoration." (Pope John Paul II, *Dominicae Cenae*)

2. This is a personal invitation to you from Jesus.

"Jesus waits for us in this Sacrament of Love." (Pope John Paul II, *Dominicae Cenae*)

3. Jesus is counting on you because the Eucharist is the center of life.

"Every member of the Church must be vigilant in seeing that the sacrament of Love shall be at the center of the life of the people of God so that through all the manifestations of worship due Him shall be given back 'love for love' and truly become the life of our souls." (Pope John Paul II, *Redeemer of Man*)

4. Your hour with Jesus in the Blessed Sacrament will repair for evils of the world and bring about peace on earth.

Adora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Let us be generous with our time in going to meet Jesus and ready to make reparation for the great evils of the world. Let your adoration never cease." (Pope John Paul II, *Dominicai Cena*)

5. Day and night Jesus dwells in the Blessed Sacrament because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world to Him!

"Christ is reserved in our churches as the spiritual center of the heart of the community, the universal Church and all humanity, since within the veil of the species, Christ is contained, the Invisible Heart of the Church, the Redeemer of the world, the center of all hearts, by Him all things are and of whom we exist." (Pope Paul IV, *Mysterium Fidei*)

6. Jesus wants you to do more than to go to Mass on Sunday.

"Our communal worship at Mass must go together with our personal worship of Jesus in Eucharistic adoration in order that our love may be complete." (Pope John Paul II, *Redeemer of Man*)

7. You grow spiritually with each moment you spend with Jesus!

"Our essential commitment in life is to preserve and advance constantly in an Eucharistic life and with Eucharistic piety, and to grow spiritually in the climate of the Holy Eucharist." (Pope John Paul II, *Redeemer of Man*)

8. The best time you spend on earth is with Jesus, your Best Friend, in the Blessed Sacrament!

"How great is the value of conversation with Christ in the Blessed Sacrament, for there is nothing more consoling on earth, nothing more efficacious for advancing along the road of holiness!" (Pope Paul VI, *Mysterium Fidei*)

9. Just as you can't be exposed to the sun without receiving its rays, neither can you come to Jesus exposed in the Blessed Sacrament without receiving the Divine Rays of His Grace, His Love, His Peace.

"Christ is truly the Emmanuel, that is, God is with us, day and night, His is in our midst. He dwells with us full of grace and truth. He restores morality, nourishes virtue, consoles the afflicted, and strengthens the weak." (Pope Paul VI, *Mysterium Fidei*)

10. If Jesus were actually visible in church, everyone would run to welcome Him, but He remains hidden in the Sacred Host under the appearance of the Bread, because He is calling us to faith, that we many come to Him in humility.

"The Blessed Sacrament is the 'Living Heart' of each of our churches and it is our very sweet duty to honor and adore the Blessed Host, which our eyes see, the Incarnate Word, Whom they cannot see." (Pope Paul VI, *Credo of the People of God*)

11. With transforming mercy, Jesus makes our heart one with 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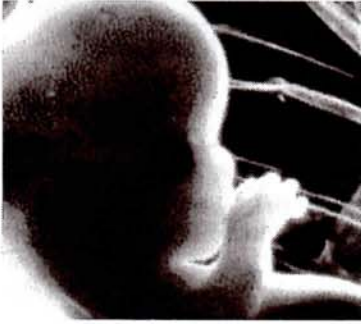
"He proposes His own example to those who come to Him, that all may learn to be like Himself, gentle and humble of heart, and to seek not their own interest but those of God." (Pope Paul VI, *Mysterium Fidei*)

12. If the Pope himself would give you a special invitation to visit him in the Vatican, this honor would be nothing in comparison to the honor and dignity that Jesus Himself bestows upon you with the Invitation to spend one hour with Him in the Blessed Sacrament.

"The Divine Eucharist bestows upon the Christian people the incomparable dignity." (Pope Paul VI, *Mysterium Fidei*)



BODY PARTS FOR SALE - FETAL HARVESTING-



By Mona Charen

- Nationally
Syndicated
Columnist

November 9, 1999

"Kelly" (a pseudonym) was a medical technician working for a firm that trafficked in baby body parts. This is not a bad joke. Nor is it the hysterical propaganda of an interest group. It was reported in *The American Enterprise* magazine -- the intelligent, thought-provoking, and utterly trustworthy publication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he firm Kelly worked for collected fetuses from clinics that performed late-term abortions. She would dissect the aborted fetuses in order to obtain "high-quality" parts for sale. They were interested in blood, eyes, livers, brains and thymuses, among other things.

"What we did was to have a contract with an abortion clinic that would allow us to go there on certain days. We would get a generated list each day to tell us what tissue researcher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were looking for. Then we would examine the patient charts.

We only wanted the most perfect specimens." That didn't turn out to be difficult. Of the hundreds of late-term fetuses Kelly saw on a weekly basis, only about 2 percent had abnormalities. About 30 to 40 babies per week were around 30 weeks old -- well past the point of viability.

Facts on Abortion Is this legal? Federal law makes it illegal to buy and sell human body parts. But there are loopholes in the law. Here's how one body parts company -- Opening Lines Inc. -- disguised the trade in a brochure for abortionists: "Turn your patient's decision into something wonderful"

For its buyers, Opening Lines offers "the highest quality, most affordable, freshest tissue prepared to your

specifications and delivered in the quantities you need, when you need it."

Eyes and ears go for \$75, and brains for \$999. An "intact trunk" fetches \$500, a whole liver \$150. To evade the law's prohibition, body-parts dealers like Opening Lines offer to lease space in the abortion clinic to "perform the harvesting," as well as to "offset [the] clinic's overhead."

Opening Lines further boasted, "Our daily average case volume exceeds 1500 and we serve clinics across the United States."

Kelly kept at her grisly task until something made her reconsider. One day, "a set of twins at 24 weeks gestation was brought to us in a pan. They were both alive. The doctor came back and said, 'Got you some good specimens -- twins.'

I looked at him and said: 'There's something wrong here. They are moving. I can't do this. This is not in my contract.' I told him I would not be part of taking their lives. So he took a bottle of sterile water and poured it in the pan until the fluid came up over their mouths and noses, letting them drown. I left the room because I could not watch this."

But she did go back and dissect them later. The twins were only the beginning. "It happened again and again. At 16 weeks, all the way up to sometimes even 30 weeks, we had live births come back to us. Then the doctor would either break the neck or take a pair of tongs and beat the fetus until it was dead."

American Enterprise asked Kelly if abortion procedures were ever altered to provide specific body parts. "Yes. Before the procedures they would want to see the list of what we wanted to procure.

The (abortionist) would get us the most complete, intact specimens that he could. They would be delivered to us completely intact. Sometimes the fetus appeared to be dead, but when we opened up the chest cavity, the heart was still beating.

The magazine pressed Kelly again: Was the type of abortion ever altered to provide an intact specimen, even if it meant producing a live baby? "Yes, that was so we could sell better tissue. At the end of the year, they would give the clinic back more money because we got good specimens."

Some practical souls will probably swallow hard and

Former Abortionist Speaks Out

insist that, well, if these babies are going to be aborted anyway, isn't it better that medical research should benefit? No. This isn't like voluntary organ donation.

This reduces human beings to the level of commodities. And it creates doctors who swore an oath never to kill the kind of people who can beat a breathing child to death with tongs.

FORMER ABORTIONIST SPEAKS OUT

Carol Everett was involved in the abortion industry in the Dallas, Texas, area from 1977 to 1983. As director of four clinics, and owner of two, Everett was responsible for the clinics' daily operation. Everett, who had an abortion soon after it became legal in 1973, now speaks out on what she saw in the abortion industry.

Here's how Carol Everett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abortion industry:

Q. What is the governing force behind the abortion industry?

A. Money. It is a very lucrative business. It is the largest unregulated industry in our nation. Most of the clinics are run in chains because it is so profitable.

Q. In what way is the woman deceived?

A. Every woman has two questions, "Is it a baby?" and "Does it hurt?" The abortionist must answer "NO." He/she must lie to secure the consent of the woman and the collection of the clinic's fee. The women were told that we were dealing with a "product of conception" or a "glob of tissue." They were told that there would be only slight cramping, whereas, in reality, an abortion is excruciatingly painful.

Q. What type of counseling was offered at the clinics?

A. We didn't do any real counseling. We sold abortion.

Q. How did you dispose of an aborted baby?

A. We put them down the garbage disposal. Some second and third trimester babies' muscle structure is so strong that the baby will not come apart, so they must be

disposed of through trash receptacles.

Q. Abortion is supposed to be a "safe" experience. What complications did you witness?

A. In the last 18 months I was in the business, we were completing over 500 abortions monthly and killing or maiming one woman out of 500. Common complications that take place are perforations or tears in the uterus. Many of those result in hysterectomies. The doctor might cut or harm the urinary tract, which then requires surgical repair. A complication that is rarely publicized is the one in which the doctor perforates the uterus and pulls the bowels through the vagina, resulting in colostomy. Some of those can be reversed, some must live with the colostomy for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Q. Why did you get out of the abortion business?

A. Two things came into play at the same time. I experienced a profoundly religious transformation -- a conversion. At about the time I was having second thoughts, a Dallas television station did an expose disclosing the abortions performed at my clinic on non-pregnant women -- all for money! I finally realized, "We weren't helping women -- we were destroying them -- and their children." By then, my transformation was complete and I knew that I not only had to stop being involved with abortions, but I had to help promote the truth.

Stations of the Cross for Unborn Children



The First Station: Jesus is Condemned to Death

Though innocent, Jesus is condemned by the power of the State. In like manner, our innocent brothers and sisters in the womb have been condemned. Their rights and dignity are not recognized. In this, they bear a special likeness to Jesus.

The Second Station: Jesus is Made to Bear His Cross

The salvation of the world carried a heavy price for our Lord, the agony of the cross. As He accepts His cross, let

Stations of the Cross

us also resolve to endure suffering that others may live. Let us pay the price for standing up for our preborn brothers and sisters.

The Third Station: Jesus Falls the First Time

Almighty God was weak because He chose to be like us. He had power and glory from all eternity, yet He chose to be immersed in the world of suffering. We pray that the benefits and advantages we have in life may not cause us to forget our pre-born brothers and sisters.

The Fourth Station: Jesus Meets His Afflicted Mother

There is no deeper relationship than that of mother and child. They belong together. When one suffers, the other suffers. To love and defend one means to love and defend the other. To be pro-life means to serve both the child and the mother. It means to ask our society, "Why can't we love them both?"

The Fifth Station: The Cyrenian Helps Jesus to Carry His Cross

Many watched the Lord suffer. Simon the Cyrenian helped alleviate that suffering. Many lament abortion. Some actually get involved to help to stop it. We pray that all people may take their active place in the pro-life movement.

The Sixth Station: Veronica Wipes the Face of Jesus

The compassion Veronica shows reflects the compassion of so many medical doctors and nurses, who treat their patients with dignity. We pray for repentance and renewal in the medical profession. May the tools and skills meant for healing nevermore be used for killing.

The Seventh Station: Jesus Falls the Second Time

In working to defend life, there are many setbacks and obstacles. Yet we know the meaning of the cross. In weakness, power reaches perfection. We do not look to our own strengths and talents alone, but to Christ. His own strength will sustain us.

The Eighth Station: Jesus Speaks to the Women of Jerusalem

Christ told these women to weep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He does not want false worship, but repentance. He does not want followers who cry out to Him but then ignore injustice and bloodshed. May all who believe in Christ likewise stand up for the

defenseless children.

The Ninth Station: Jesus Falls the Third Time

Despite the falls, nothing can stop our Lord, because He is on a mission of love. If the pro-life movement is not a movement of love, it is nothing at all, but if it is a movement of love, then nothing will stop it. Love is stronger than death, more powerful than hell.

The Tenth Station: Jesus is Stripped of His Garments

Nobody can stop us from loving our preborn brothers and sisters. Those stronger than we may strip us of popularity, possessions, or power, but they cannot strip us of love. We love others with the same love that Christ showed for us.

The Eleventh Station: Jesus is Nailed to the Cross

The powers of this world crucified the God who made this world. All power and authority come from God. All who exercise power have to account for it before the throne of God. We pray that those in government may use their powers to protect the innocent babies in the womb.

The Twelfth Station: Jesus Dies on the Cross

Our Lord died. So many of His children have died with Him. His passion is re-lived with every abortion, one every twenty seconds in our country. We only know a fraction of the horror of this act in the sight of God. We only know a fraction of the horror of Christ's crucifixion. May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killed by abortion rest in Christ's peace and be saved by His cr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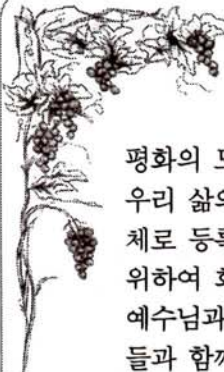
The Thirteenth Station: Jesus is Taken Down from the Cross

Mary experienced the pain of holding her dead Son. So many mothers grieve after their abortions. We ask that Mary may comfort them, help them face the truth about abortion, and lead them to forgiveness and healing.

The Fourteenth Station: Jesus is Laid in the Tomb

A tomb is a memorial. It helps us remember the one who can no longer speak. May we and our society remember the babies who cannot speak. May we also remember Our Lord's Resurrection, and His promise of eternal life. He has conquered abortion because He has conquered death. May we bring His victory to every part of our world!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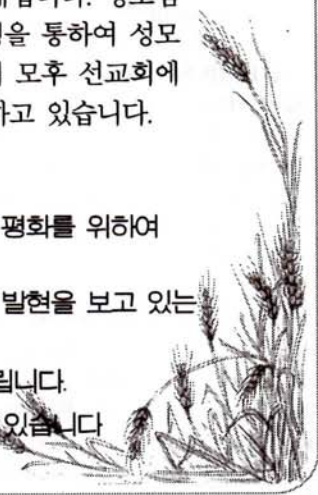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욕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육성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초청강연회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과 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_____ 영문 : _____ 영세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H) : _____ 전화(O) : _____ 날짜 년 월 일

E-mail : _____ 소속본당 : _____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 _____ 기존회원 () 새회원 ()

보내실곳 ▶ 미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한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02-2281-3236 Fax. 02-2298-3135)
 옥수동 성당 :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전화 : 02-2297-2038
 후원금 입금 계좌: 신한은행 242-01-007905 (예금주: 평화의 모후 선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동참해주신 후원회원님들과 강미카엘라, 신요한, 유글라라, 익명의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대신하여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8호는 3000를 더 추가 인쇄하였습니다.
부족금은 33차 순례의 수익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도와주시는 영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요한. 신동배. 강동훈. 유글라라. 최마르티노. 최루시아. 고미향.
김율리아나. 한율리안나. 이택. 이마리아. 이경애. 정광선. 김금식.
황장애. 송란규. 이윤정. 김임정. 김문건. 전연희. 최정열. Leach I.
오애희 박찬일. 최승경. 이순자. 노종만. 김영임. 권미숙. 박영옥.
황운옥. 윤병운. 최경순. 박철효. 오테레사. 김영자. Wagner Cmsgt.
이혁주. 길윤옥. 백안셀모. 이재구. 김창미. 퀸스티브. 정기환. 김희경.
Ann Higginson. 김태자. 윤데레사. 강영자. 손은하. 오선영. 홍현미. 최경미.
은경미. 이진미. 최동숙. 윤멜라디나. 신순덕. II, 기도희. 황안나. 김정윤.
이희훈. 오영수. 문데레사. 최헬레나. 오수산나. 엄데레사. 소안나.
포트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원 일동. 부르클린 바다의 별 Pr. 익명.
(하와이: 27호, 28호)

김영자. 정영애. 김혜정. 루시아. 최벨라. Anna H. 정원. 글라라
김순옥 루시아. 임마꼴라따. 정봉화. 최경순. 노안나.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 후원금 합계	\$ 12,831.00
지출 (27호 소식지)	
인쇄, 발송, 후원회원봉투 인쇄	\$ 9,870.00
통신비	\$ 513.00
교통비	\$ 862.00
기타 비용	\$ 515.00
• 지출 합계	\$ 11,760.00
• 이월 잔액금	\$1,0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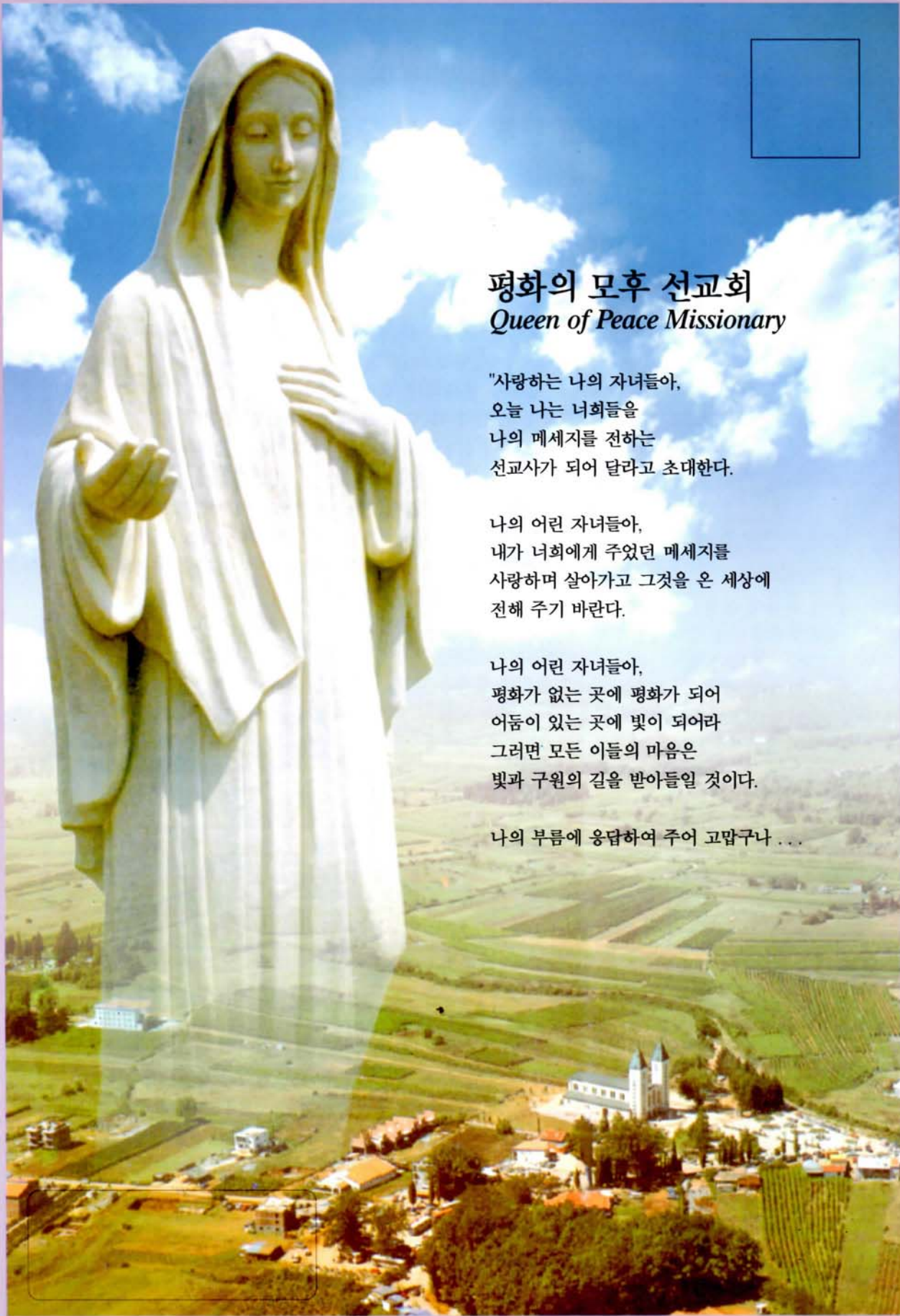
설터



미소한 자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청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낙태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일부인 힘없는 자식을 살해 하는 끔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자기 자녀를 살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동정녀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미소한 자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청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깨달으십시오."

— 마더 테레사의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소감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KOREA

노선택 마리스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Tel. 02-2281-3236 / Fax. 02-2298-3135
E-mail: soulbassmaster@hotmail.com